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3. 봄소풍

오늘은 봄소풍 주일입니다.

지난 주 (5/24/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15.00

9:1: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형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시편 127편 1절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수고와 헛됨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6/7/26	6/14/26
장헬렌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

오늘 본문 속에서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들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교회에 당도했을 때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였으며, 동시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최초의 교회였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 어느날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장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람들 중에 할례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안디옥교회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 갑자기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동시 따라 나갔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 담임목사였던 바나바까지 따라나가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걸어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이 크게 분노하여 당시 바울의 위치에서는 절대 쳐다볼 수 없는 위치에 있던 베드로를 향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점점 커져 교회 안에 할례파의 목소리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크리스천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에게 최종 합의를 받아 오기 위해 바울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열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1차 공의회입니다. 그 회의에서 한참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여겨지는 베드로가 긴 침묵을 깨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연설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초대 교회 안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인간의 행위를 받아 들이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종교화를 급속도로 진행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웠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훼손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명령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한 순간에 물들어 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